

보도시점 2023. 9. 6.(수) 12:00
(2023. 9. 7.(목) 조간)

배포 2023. 9. 6.(수) 09:00

통신서비스 품질 미흡지역 79개소 중 74개소의 통신 품질 개선

- 5G는 20개소 전부 개선, LTE는 59개소 중 교통인프라 5개소 미개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이종호)는 ‘22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서 확인된 품질 미흡지역(구간) 79개소(5G서비스 20개소, LTE서비스 59개소)에 대해 품질 개선 여부를 재점검한 결과, 5G는 모든 곳에서, LTE는 54개소에서 품질이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 서비스 및 지역유형별 품질 미흡지역 개선 현황 >

서비스 유형	점검	행정동	다중 이용시설	지하철	고속철도	개선	개선율
5G	20	2	3	12	3	20	100%
LTE	59	13	1	40	5	54	92%
합계	79	15	4	52	8	74	94%

※ 품질 미흡지역 : 전송성공률 90% 이하인 지역

품질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 미개선지역(구간)은 주로 교통인프라의 LTE 서비스에 집중되었다. 사업자별로 보면 SK텔레콤과 KT는 품질 미흡지역을 전부 개선하였으나, LG유플러스는 LTE 서비스 5개소에서 미개선지역(구간)*이 확인되었다.

* △수도권 2호선 홍대입구 ↔ 신도림, △수도권 3호선 신사 ↔ 약수, 불광 ↔ 삼성, △수도권 4호선 안산 ↔ 한대앞, △KTX 경부선 광명 ↔ 천안아산

< 통신사업자별 서비스유형별 품질 미흡지역 개선 현황 >

서비스 유형	SKT		KT		LGU+		전체	
	개선	미개선	개선	미개선	개선	미개선	개선	미개선
5G	2	0	12	0	9	0	20	0
LTE	6	0	15	0	50	5	54	5
합계	8	0	27	0	59	5	74	5

※ 통신사별 중복된 지역(구간)이 있어 전체 수치는 통신사별 수치의 합계와 다를 수 있음

구체적으로, 5G 서비스는 품질 미흡지역(구간) 20개소 전체의 품질이 개선되었다. 사업자별로 보면, '22년 확인된 품질 미흡지역(구간)은 SKT는 2개소, KT는 12개소, LGU+는 9개소가 있었으나, '23년 재점검 결과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통신사업자별 지역유형별 5G 품질 미흡지역 개선 현황 >

지역 유형	SKT		KT		LGU+		전체	
	개선	미개선	개선	미개선	개선	미개선	개선	미개선
행정동	-	-	2	0	-	-	2	0
다중이용시설	-	-	2	0	1	0	3	0
지하철	2	0	7	0	6	0	12	0
고속철도	-	-	1	0	2	0	3	0
합계	2	0	12	0	9	0	20	0

※ 통신사별 중복된 지역(구간)이 있어 전체 수치는 통신사별 수치의 합계와 다를 수 있음

※ 특정 유형에 특정 통신사의 품질 미흡지역이 없는 경우 "-" 표시

한편, LTE 서비스는 품질 미흡지역(구간) 59개소 중 약 92%인 54개소에서 품질 개선이 확인되었다. 사업자별로 보면, SKT 6개 지역(구간) 중 6개, KT 15개 지역(구간) 중 15개, LGU+ 55개 지역(구간) 중 50개가 개선되었으며, 품질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 미개선지역(구간)은 SKT와 KT는 없으며, LGU+는 5개로 나타났다. 미개선지역(구간)은 모두 지하철·고속철도였다.

< 통신사업자별 지역유형별 LTE 품질 미흡지역 개선 현황 >

지역 유형	SKT		KT		LGU+		전체	
	개선	미개선	개선	미개선	개선	미개선	개선	미개선
행정동	-	-	1	0	12	0	13	0
다중이용시설	-	-	-	-	1	0	1	0
지하철	6	0	10	0	36	4	36	4
고속철도	-	-	4	0	1	1	4	1
합계	6	0	15	0	50	5	54	5

※ 통신사별 중복된 지역(구간)이 있어 전체 수치는 통신사별 수치의 합계와 다를 수 있음

※ 특정 유형에 특정 통신사의 품질 미흡지역이 없는 경우 "-" 표시

과기정통부 김경만 통신정책관은 “5G 서비스는 미흡 지역을 모두 개선하는 등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만, LTE 서비스는 여전히 미개선지역이 일부 남아 있어 매우 아쉽다”고 평가하며, “미개선지역으로 확인된 5개소는 하반기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서 다시금 점검하여 품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통신정책관 통신자원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 철 (044-202-6660)
		담당자	사무관	상은혜 (044-202-6668)

